

데스크 시각



김미은 문화부장

박수 소리, 환호와 함께 커튼콜이 끝났다. 얼른 눈물을 닦고, 로비로 나와 관객들을 인터뷰했다. 그 때 누군가가 히로키상이 울고 있다는 말을 전했다. 그는 씩씩스러운듯 “그냥 눈물이 난다”며 웃었다. 만감이 교차하는 모양이었다.

히로키상의 눈물

5월31일과 6월1일, 일본 도쿄 티아라 고토홀, ‘화려한 휴가’ 공연장에서 느낀 감정은 묘했다. 첫날 로비에서 가장 먼저 들은 건 일본인들이 부르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었다. 이 노래를 둘러싼 말도 안되는 논쟁을 겪고 간 터라 일본 한복관에서 듣는 ‘임을 위한 행진곡’에 일행 모두 울컥했다.

은펜칼럼



송민석 통일부 전남지역통일교육센터장

북한관련 단체에 의하면 현재 방영중인 KBS2 TV ‘최고다 이순신’이 북한에서 인기라고 한다. 세계에 불어 닦치는 한류 열풍이 바람을 타고 돌고 돌아 북한 땅에도 불고 있음이다. 북한 방송은 지도자를 찬양하는 프로그램만 있을 뿐 소시민의 일상과 인간관계를 다룬 내용은 거의 없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 아닌가 한다.

북한에 남한의 영상매체가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시절이라고 한다. 배급제가 붕괴되면서 당국의 감시와 통제

기고



김승현 광주 광산구청 공보관

불교 경전 ‘화엄경’에 ‘인드라마’가 나온다. 하늘나라 여러 궁전 중에 계석천(帝釋天)이 있는데, 그곳에 드리워진 그림을 말한다. 춤추는 그물고마나 크고 작은 유리구슬들이 달려 있다. 한 개의 구슬은 주변의 구슬들을 비추고, 나머지 구슬들도 마찬가지로 역할을 한다. 구슬들은 서로를 비추고, 비추주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살아있음을 확인한다. 요즘 공동체가 화두다. 마을·아파트 같은 동일 생활공간을 바람직하게 만드는 공동체 뿐만이 아니다. 복지·문화·경제 분야 등 생활과 생존의 필요를 함께 해결하는 협동조

오늘 당장 옆 동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 보자

최근 30도가 넘는 한여름 날씨를 보여주며 짜증날 가을과 같다. 이럴 때일수록 동료 간, 선후배 간 관심과 애정이 필요할 때이다. 하지만 세상살이가 각박하고 부서지기주의가 팽배한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여전히 동료들에게 웃음보다는 스트레스를 심어주는 존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힐링(healing)이라는 단어가 몇 년 전부터 유행이 되고 있다.

그만큼 상처받은 이들이 많고, 사회적이

광주, 부산, 그리고 도쿄

이날 공연을 보러온 사람들 대부분은 일본인들이었다. 공연 내내 객석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이어졌고, 로비에 전시된 5·18 사진을 유심히 살펴보는 관객들도 많았다. 히로키상을 처음 만난 건 지난해 2월이었다. 일본문화운동단체 ‘우타고에’ 회원인 그는 ‘화려한 휴가’ 일본 초청을 위해 광주를 방문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도쿄 공연을 위해서는 일단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야 하는데, 어렵고 큰 숙제를 안고 돌아간다”고 말했다. 다시 만난 그에게 “약속을 지키셨다”며 말을 건네자 “사실 많이 힘들었다”는 답이 돌아왔다. ‘화려한 휴가’ 유치를 확정 지은 회원들은 1년 전부터 ‘뮤지컬 화려한 휴가’를 성공시키는 도쿄모임을 꾸렸다. 대관료, 장비 대여료 등 1억여 원에 달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티켓 판매에 발벗고 나섰다. 제작한 홍보 리플릿만 8만 장이었다. 공연 후에도 회원들은 광주에서 준비해간 ‘일본어판’ 5·18자료집과 리플릿을 나눠주며 목이 터져라 ‘5·18’을 홍보했다. “우리라 하면 저릴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제주 출신이라는 50대 재일교포 두명의 인터뷰 내용이 가슴에 박혔다. “30년도 더 지난, 한국의 어떤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른 뮤지컬을 일본사람들이 유지하고, 저

렇게 홍보하는 걸 보니 한국 사람으로서 놀랍고,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 히로키상은 “화려한 휴가’가 역사애곡을 일삼는 요즘 일본의 절박한 현실을 환기시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길을 제시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꾸는 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고,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이 이 작품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돼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며 뿌듯해 하기도 했다.

5월을 기억하라

올해 5월은 우연찮게 광주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오월’을 바라볼 수 있었다. 5월 19일에는 부산에 있었다. 고은사전미술관에서 열린 ‘5·18 광주민중항쟁 33주년 기념 전시회-그 날의 출라송’ 취재차였다. 전시 관람 전쯤부터 준비 과정을 취재하며 느낀 첫번째 감정은 ‘고맙다’였다. 광주도, 서울도 아닌 심리적으로 굉장히 먼 부산에서 대규모 5월전이 열린다는 소식이 그냥 감사했다. 사진 작가 11명의 작품 150여점이 나열된 전시장에 들어섰을 때, 광주가 누군가에 의해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전시장을 천천히 둘러보는 관람객들 한명 한명

이 모두 소중하게 느껴졌다. “광주가 더 이상 섬이 아니길 바란다”는 미술관장의 말은 깊은 울림을 줬다. 최근 서중석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는 정년 퇴임 고별강연에서 “5·18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전남도청을 점령했다고 보도한 내용은 인류가 갈나를 점령했다는 얘기보다 더 신기한 얘기”라고 언급했다. 공식영화에나 등장할 내용이 버젓이 ‘방송’이라는 공기(公器)를 통해 흘러나오는데 요즘의 대한민국이다. 5·18과 광주를 둘러싸고 ‘일베’에서 오가는 이야기는 분노를 넘어 서글픔을 자아낸다. 뮤지컬 ‘화려한 휴가’에는 이런 노래가 나온다. “우릴 기억해요, 제발 나를 잊지마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본에서, 부산에서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서 ‘힘’을 얻는 이들을 만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오히려 광주는 점차 그들을 잊어갔던 건 아닐까. 5월 내내 화두였던 ‘임을 위한 행진곡’과 ‘북한 개입설’ 사태에서 광주 시민은 자유로운 줄 있을까 하는. 부산 인근을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고은사전미술관에 한번 둘러보면 좋겠다. 해운대에서 도보로 2~3분거리다. 전시는 7월31일까지 계속된다. /mekim@kwangju.co.kr

社說

만년 낙후 호남, 인구마저 충청에 밀리다니

광주와 전남·북 인구가 처음으로 충청권에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권은 그렇다 쳐더라도 충청권에도 밀리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호남권(광주 147만1801명, 전남 190만 6335명, 전북 187만1592명)의 인구는 충청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호남권(광주 147만1801명, 전남 190만 6335명, 전북 187만1592명)의 인구는 충청권에 행정도시와 투자가 크게 늘면서 상대적으로 더욱 꺾여지고 있다. 사람이 없다 보니 예산과 세수가 줄어 경쟁력은 더 떨어지고, 국회의원 수마저 줄어 정치력 위상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는 만년 낙후지역인 호남을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낙후도에 따라 대형 프로젝트와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혁신도시 활성화 및 기업 유인책 등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자치단체 역시 기업과 투자 유치를 위해 배전의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광주U대회 남북단일팀 필히 성사시켜야

2015 광주세계U대회에서의 남북단일팀 구성이 이번 남북대화의 주요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UN 산하 UNOSDP(UN스포츠개발 평화사무국)이 이미 지난해 7월 남북단일팀이 구성될 수 있도록 직접 중재에 나서기로 약속한 만큼 시너지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10일 간부회의에서 “최근 통일부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방문해 남북회담이 개최되면 U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을 의제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이에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러한 내용을 문체부에서도 통일부에 건의했고, 북한당국도 광주가 남북단일팀 구성을 희망하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스포츠 사상 최초로 단일팀이 구성된다면 광주U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 남북 화해·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지 않을 것이다.

금까지 축구와 탁구 등 단일종목에서 단일팀이 구성된 적은 있으나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등 종합 국제대회에서 구성된 전례는 없었다. 광주U대회에 남북단일팀 참가는 그동안 적대관계를 유지해온 남북 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돼 성공 개 최 또한 자명한 일이다. 물론 남북 간 대화가 화해·협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국가간 대립관계일수록 상황을 완화시키는 데 스포츠가 활용됐다던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이번 남북대회에서 여러 의제 가운데 단일팀 성사를 먼저 들고 나온다면 전일 보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광주시와 조직위는 광주U대회가 한국 스포츠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도록 정부에 단일팀 구성을 촉구 하고, UN 측도 북한을 방문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내야 할 것이다.

북에 부는 한류열풍

이안으로 중국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을 통해서다. 당시 남한가요가 중국 연변가요로 포장되어 북한에 유입되면서 북한에도 한류 문화가 시작되었고, 북한 사람들은 남한가요를 중국 연변가요로 알고 따라 부르게 된 것이다. 물론 북한에서 남한 영상물이나 출판물을 소지하는 것이 처벌 대상이 된다. 그렇지만 북한이 암시장에서 중국을 통해 몰래 들여온 한국 드라마와 음악 등이 담긴 CD나 DVD 등이 공공연히 팔리고 있다는 것이다.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통제를 피해가면서 캐리캐리 남한 영상물을 돌려가며 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장 인기를 누렸던 드라마는 ‘가을동화’, ‘겨울연가’, ‘천국의 계단’, ‘열인’ 등이었다. 최근에는 드라마 외에도 ‘무한도전’이나 ‘1박2일’과 같은 프로그램까지 방영된 지 1주일 만에 북한에서 유통이 된다는 사실은 남한의 문화, 한류바람이 알게 모르게 북한에 사회 깊숙이 퍼져 있음을 말해준다. 필자와 인터뷰한 사리원에서 탈북한 중국 교사에 따르면 수업 중에도 학생들을 자

습시켜 놓고서 가까운 동료 교사들끼리 남한 영상물을 본적이 있다고 한다. 그들은 남한 영상물을 통해 남조선의 발전된 모습을 보면서 북한 당국의 선전이 거짓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과 불신으로 이어지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아울러 나도 “저런 나라에서 살아보았으면”하는 의식의 변화를 겪을 것은 뻔하다. 한류가 확산되는데 불안을 느낀 북한 당국은 한류 바람을 ‘남조선 날라리풍’으로 규정 짓고, 남한을 ‘미제국주의 식민지’ ‘씩고 병든 자본주의’ 등으로 주민들을 교육시키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평양을 중심으로 젊은이들이 한국 아이돌 가수 노래영상과 뮤직비디오를 메모리카드에 담아 모임에서 따라 부르는 게 유행이라고 한다. 이처럼 한류열풍은 먹고 살기 힘든 일반 주민들보다 생활에 여유가 있는 간부들과 새로운 것을 갈망하는 젊은 대학생들이라는 점이다. 그들은 영상물을 통해서 웃이나 헤어스타일, 서울말씨 등 남한 따라 하기가 점

차 주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은 향후 북한체제의 변화를 전망하는 데 시사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지금보다 더 많은 북한 청소년들이 한류를 접하게 될 것이다. 과거 소련에서 청년들이 비틀즈를 보면서 자유주의를 갈망했듯이, 동족으로의 사독 문화 유입이 마침내 통일독일을 이끌어 내었듯이 북한에서도 한류가 통일의 한 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북한 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동경과 문화적 수용은 향후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남북주민간의 이질성 해소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북한에서 한류 열풍이 더욱 거세게 일어나 평양의 공연장에서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감남스타일의 ‘말춤’을 추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씀

는 코너입니다.

無等鼓

미국 남북전쟁 직전인 1850년대, 북부지역 뉴잉글랜드에는 묘한 흑인 여성 노동자 한 명이 등장했다. 잡역부나 청소부로 일하는 이 여성은 여름과 겨울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지만 봄과 가을만 되면 그동안 차곡 차곡 모은 돈을 들고 어디론가 사라지곤 했다. 그녀가 다시 나타날 때면 빈털터리였다. 훗날 알려졌지만, 그녀는 남부의 흑인 노예를 북부로 탈출시키는 비밀 조직원이었다.

당시 미국에서는 남부의 흑인 노예를 북부로 탈출시키는 작업이 활발히 진행됐다. 흑인에게 자유가 보장된 북부지역의 일부 백인과 노예 신봉에서 해방된 흑인들이 주축이 된 이 작업은 ‘지하철도’(Underground Railroad)라는 암호명으로 불렸다. 공동체의 여정을 춤추며 기록해 보면 좋겠다. 공동체들이 각자의 꿈을 ‘로스팅’(roasting)하고, 더 많고 더 큰 공동체의 희망을 ‘드립’(drip)할 수 있다면 진한 ‘사람 향기’는 널리 퍼질 수 있을 것이다.

‘하철도’의 차장이자, 그 자신 탈주 노예였던 헤리엇 터브먼이었다. 그녀는 1850년부터 남북전쟁 직전인 1860년까지 무려 19차례나 남부에 숨어들어가 300명이 넘는 흑인 노예들을 북부로 탈출시켰다. 지금도 전세계에는 ‘지하철도’처럼, 부당하게 박해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또는 비밀조직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북한 탈주민을 도우려는 많은 사람이 나라 안팎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라오스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 청소년 9명 역시 ‘차장’이자 ‘역장’인 한국인 선교사 부부의 인도를 받고 있었다.

지하철도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탈북자 지원은 인도주의와 동포애의 발현이지만, 동시에 고도의 정치행위이기도 하다. 북한 탈주민을 인도하는 ‘차장’ 한 명 한 명의 노력, 그리고 전 국민의 응원이 고착된 남북관계를 타파하기는 소중한 힘이 될 것이다.

■홍행기 사회1팀장 redplane@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유진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鎔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업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 치 부 2200-612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 회 부 2200-616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게 들릴 수도 있었다. 매일 카네기는 그의 저서 ‘인간관계론’에서 항상 남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인간관계를 지향하는 것이라 하였다. 내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동료가 있는지, 나로 인하여 또 다른 곳에서 피해를 보는 동료가 있는지 한 번 둘러보아야 할 것이다. 인간은 결국 혼자서 살 수 없는 동물이다.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지 않는다면 자신 역시 어느 순간 소외받는 직장인이 될 수밖에 없음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 당장 옆 동료에게 상쾌한 인사라도 한마디 건네 보자. ▲권준해·대구시 수성구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 팩스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